

## 민화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 작품을 융합한 가방디자인 개발 연구

서은아 · 곽태기<sup>\*†</sup>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f developing the bag design based on the hybrid of folk paintings and Pieter Brueghel's works

Eun-Ah Seo · Tai-Gi Kwak<sup>\*†</sup>

Doctor's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sup>\*†</sup>

(2020. 9. 9 접수; 2021. 10. 31 수정; 2021. 5. 11 채택)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development of hybrid bag designs using folk paintings and the paintings of Pieter Brueghel.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the study examined the periodical, ideological background, aesthetic characteristics, composition and themes of folk paintings, and Brueghel's painting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many similarities were found between folk paintings and Brueghel's paintings, such as symbolism and humor, which ar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olk paintings, and the use of stories, myths, folktales, or satire with a background of nature. In addition, hybrid fashions made by mixing conflicting elements, such as East and West, men and women, and rich and poor are attracting atten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hybrid fashion designs of Korean folk paintings and Western paintings are rare. So, folktale characters were produced on Korean folktales. The deer expressed in the Bible Agatha, the tiger in from a Korean folktale, magpies are symbols of longevity. The folk painting characters described above, and the folk paintings of Peter Bruegel were fused and reconstructed. The bag designs were developed based on this fused and reconstructed work.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expand folk paintings that reflect Korea's representative thoughts and lifestyles through the fusion of various motifs and Western paintings, and to present folk paintings as a medium that can inherit Korean beauty and inform the world.

*Key Words:* folk painting(민화), Pieter Brueghel(피터 브뤼겔),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 hybrid fashion(융합 패션), 가방디자인(bag design)

---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Tai-Gi Kwak  
Tel. +82-3408-3220  
E-mail : kwaktg@sejong.ac.kr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는 예술, 기술 분야 등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장르를 가리지 않고 그 경계성이 모호해졌으며 학문 간에도 인지심리, 인지과학 등의 융합(融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회화, 조각, 디자인 등의 예술에서는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나 리메이크(remake) 형태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융합은 최근 인간 존중 사상과 다양한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글에서 키워드로 민화 관련어를 검색하여 본 결과, 민화는 약 2,330,000개, 까치호랑이 약 298,000개, 십장생도의 동물 약 50,500개, 십장생도의 사슴 약 14,700개의 순으로 검색 조회 수가 많고 특히 패션쇼와 민화를 함께 검색한 자료(구글 검색, 2020. 9. 8)를 살펴보면 약 1,380,000개로 민화를 패션 트렌드의 모티브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패션에서도 하이브리드 패션(hybrid fashion)에 융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민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화의 해학성과 상징성 등 내적인 미적 특성이나 형태, 색채 등의 표현적인 미적 특성을 이용한 소품 또는 의류 디자인 개발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상과 생활상이 반영된 민화는 여러 가지 모티브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계승할 수 있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화의 장식적인 의미와 함께 현대의 생활과 사상에 맞는 의미들을 접목시켜 계승하고자 회화나 미술작품과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패션의 선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전통 민화와 다양한 융합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민들에게서 그려지고 유행되었던 우리나라 민화 중 구전되어지는 민담을 넣어 장식적이고 해학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재해석하였다. 재해석한 까치 호랑이와 십장생도에 자주 등장하는 사슴의 민화를 이용해

네덜란드의 풍속화가인 피터 브뤼겔의 작품과 융합하여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한 모티브를 가방에 응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 민화와 피터 브뤼겔 작품을 융합하여 가방을 디자인하므로 독창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계승하며, 패션 예술로서의 승화와 함께 해학적이고 상징적인 현대의 시대상이 담긴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실물 제품을 제작하는 데 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서양의 회화와 융합된 민화를 응용한 하이브리드 패션을 제시하여 전통 민화가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디자인 개발을 한 제작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는 전통 민화와 브뤼겔 작품의 시대적, 사상적 배경 및 구도 그리고 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민화와 브뤼겔 작품의 유사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통 민화 중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사슴과 조선 시대 민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 까치호랑이의 호랑이를 선택하여 구전되는 민담 내용과 성경 아가서에 등장하는 사슴의 의미를 담은 민화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셋째, 민화 캐릭터를 브뤼겔의 풍속화 〈아이들의 놀이(Children's Games)〉와 〈바벨탑(The Tower of Babel)〉에 융합하여 새로운 모티브를 제작하였다.

넷째, 융합하여 제작한 모티브를 〈아이들의 놀이〉의 대각선 구도와 〈바벨탑〉의 삼각형 구도에 그대로 차용하고 구도대로 접어 가방 형태를 디자인하므로 오늘날 소비자들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방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범위로는 우리나라 전통 민화 중 십장생도에 장수와 화목을 상징하여 자주 등장하는 사슴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민화인 까치호랑이의 호랑이를 이용하였고 회화에서는 네덜란드의 최초 풍속화가인 브뤼겔의 작품을 선택하였다.

## Ⅱ. 이론적 고찰

### 1. 민화

#### 1) 민화의 개념 및 형성 배경

민화는 사회적, 풍토적,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민화는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고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예술품으로 장식되기도 하며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표현 하는 민중화로써 하나의 생활용품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송혜련 외, 2011).

민화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겪으며 성리학에 대한 반성으로 실학사상이 등장하면서 양반 중심에서 서민의 의식이 자각되기 시작하였고, 이로써 대중들은 현실적인 살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19세기 해상무역과 상업으로 중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중인과 평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과 동시에 신분제도의 변화도 가져왔다. 사대부에서 소장하던 회화를 중인과 평민 계층에서도 부의 상징과 장식의 목적으로 소장하는 유행이 일어나면서 민화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또한 문학, 음악,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창출되었다.

민화가 형성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조선 후기 일반 서민들의 종교인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 등을 수용하였다. 도교사상은 우리 민족의 생활 습관과 민간신앙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이러한 도교사상은 재산과 지위, 자손의 번창과 개인의 행복,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추구하려 했던 종교로서 중국에서는 근대에 이르기

까지 민간신앙을 형성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에 기성 종교의 요소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 신선사상(神仙思想)을 융합한 다신적(多神的) 종교이다(이영수, 1998). 유교는 조선 시대 국가 통치이념으로서 그 시대의 사상, 정치, 문화, 일반 생활까지 스며들어 문화 창조의 바탕이 되었다(김정수, 2008). 또한, 종교적 교화의 역할도 하였으나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합리적 현실주의라는 측면에서 교회주의와 역사성을 강조하였다(김영주, 2006).

이렇듯 도교는 민간신앙의 기원을 십장생(十長生), 신선(神仙) 등의 형태로 민화에 표현하였고, 유교는 학문적으로 도덕적이며 교화의 목적을 담은 효제도와 문자도 등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도교, 유교, 불교 등의 종교는 민화 형성과 표현에 기반이 되었고 민화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정신세계와 미의식(美意識)이 잘 나타나 있다. 성리학에 대한 반대로 근대 의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실학사상이 등장하고 그에 따른 자연과학, 기술, 풍습 등 조선의 개혁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2) 민화의 특성

조선 후기 민화의 구도는 화훼도(花卉圖)와 산수도(山水圖)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좌우 대칭되는 대칭형 구도와 한 화면 안에 여러 가지 사물을 겹침 없이 배치하거나 가운데 나란히 배치하는 나열형 구도가 사용되었다. 원근법은 무시하거나 역원근법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기도 하였으며 서양에서는 하나의 시점이 대부분이지만 민화는 여러 가지 시점을 옮겨가며 다시점(多視點)의 구도



〈그림 1〉 초일월오봉도

(출처: <https://100.daum.net/multimedia/entry/14XXE004> (2796))



〈그림 2〉 십장생도 병풍

(출처: <https://100.daum.net/multimedia/entry/14XXE0034032>)



〈그림 3〉 까치호랑이

(출처: [https://100.daum.net/multimedia/130\\_43400034\\_i1.jpg](https://100.daum.net/multimedia/130_43400034_i1.jpg))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화의 내용적인 미적 특성은 송혜련, 김혜경(2011)의 연구에서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 중 대중의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 그려지는 대중성을 실용성과 하나로 정리하였으며 하수경(2004)에서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에 관념성을 더하여 4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상징성(象徵性)은 공동체 의식을 구현한 것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민중이 소망하던 염원들은 현세의 복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상세계나 종교적인 뜻을 담기도 한다(송혜련외, 2011). <그림 1>의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를 살펴보면 붉은 해와 흰 보름달을 동시에 한 화면 안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듯 낮과 밤, 과거와 미래 등 시간 공간을 동시에 한 화면 안에 반영하여, 그리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적 회화 양식이다. <그림 2>의 십장생도(十長生圖)에서 10가지 소재들은 불로장생(不老長生)을 상징하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사슴 형태의 특성은 날쌔며 동물 중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격을 가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선령지수(仙靈之獸)라 하여 신선도와 여러 민화에서 학과 함께 신선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 등장한다. 십장생에 등장하는 사슴은 한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부부상화(夫婦相和) 즉, '항상 부부가 화목하라'는 의미와 장수(長壽)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둘째, 해학성(諧謔性)으로 현실속 개개의 사실들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찰에 의해 세계나 인생사의 일들을 간접하는 것으로 불합리나 모순을 표현함에 있어 한층 깊게 통찰하여 동정적으로 감싸는 것을 말한다(송혜련외, 2011). 민화에 나타나는 해학적 표현은 내용적으로는 서민의 삶과 염원, 권력에 대한 저항과 사회비판을 담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뒤틀림과 왜곡', '생략과 과장', '변용과 상징'을 통해 익살과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이인영, 2017).

조선 후기의 사회제도적 모순과 양난의 어지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 양반계층의 횡포에 대한

반항으로 해학과 풍자를 통해 억압된 감정을 민화로 승화시켰다. <그림 3>의 호작도(虎鵲圖)에서 공포의 대상인 호랑이는 우리와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호랑이의 맹수성을 거세시키고 대부분 친근한 이미지와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호랑이는 귀족들을 비유하고 까치는 백성들로 익살스러운 호랑이를 비웃는 것 같은 해학과 풍자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용성(實用性)은 생활화 실용화로서 한국인의 주거공간에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생활필수품으로 모든 사람의 그림이었다(송혜련외, 2011). 민화는 생활미술에 속하는 그림으로 조선 후기 결혼과 종교의식, 주술적 의미, 장식 목적 등 생활의 각 분야와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중적이고 실용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림 3>의 <까치호랑이> 그림은 세화(歲畫)라고 하여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는 용도로 주고받았는데 이런 세화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에 이르게 된다.

중국의 산둥 지방에서 유래되어 새해에 호랑이를 그린 그림을 주고받으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 바라는 덕담을 나누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넷째, 관념성(觀念性)으로 구체적인 관찰 없는 관념에 의한 표현은 그림의 화면구성, 비례, 색채, 형태 등에 고루 작용하는 관념성과 화면에 구성된 물체의 대소는 관념적 중요도에 의한 비례관계를 택하고 있다(하수경, 2004). <그림 3>의 <까치호랑이>에서 멀리 있는 발을 앞에 있는 발보다 크게 그리거나 관찰을 근거로 한 사실의 비례관계를 무시하는 관념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호랑이의 무늬나 눈, 코, 입의 모양 역시 현실성과 관계없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자유롭게 그렸다.

## 2. 피터 브뤼겔

### 1) 피터 브뤼겔의 생애와 작품의 형성 배경

피터 브뤼겔(1525~1569)은 네덜란드의 실증적 정신을 반영한 독창적 풍속화의 대표적 화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학하였다. 현재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네덜란드 남부에 위치했던 플랑드르(Flandre) 공국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

기를 살았다. 그의 전기 대표 작품은 민담, 속담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중기의 작품은 스페인에게 종속되었던 네덜란드에 대한 억압을 종교적 제재로써 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후기에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을 사실적 묘사와 해학으로 표현하여 '농민의 브뤼겔'이라고 불리었다. 브뤼겔의 풍경 묘사는 풍경화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브라반트(Brabant) 지방에서 태어나 북유럽 상업도시 앤트워프(Antwerp)로 나가 피터 쿠케 반 알스트(Pieter Coecke van Aalst)에게 그림을 배우고 히로니무스 코크(Hieronimus Cock) 공방에서 판화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였다. 1552년부터 3~4년간에 걸쳐 이탈리아로 여행을 하고 앤트워프(Antwerp)로 다시 돌아와 같은 공방에서 일하면서 유화도 제작하였다.

1555년 이후부터 사망 전인 10여 년간 그의 대표작이 그려진 시기로 유화의 대작들이 제작되었다. 1563년 스승 피터 쿠케 반 알스트의 딸 마켄 쿠케(Mayken Coecke)와 결혼하고 종교적 박해 등의 이유로 같은 해 앤트워프에서 브뤼셀(Brussels)로 옮겨 후기 대작들을 남기고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브뤼겔이 살았던 네덜란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스페인의 왕 카를 5세가 당시에 통치하였다. 카를은 투르네, 아르투아, 위트레흐트, 호로닝언, 헬러 등의 지역을 추가로 확장해 저지대 지역의 17개 작위를 보유하고 1549년에는 황제 조칙을 발표해 장남 펠리페 2세(Felipe II de Habsburgo)가 통치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저지대의 17개 영지를 하나로 통합한 영토가 생겨났고 펠리페 2세는 마르게리타 드 파리마(Margherita di Parma, 1522~1586)에게 네덜란드를 섭정하도록 임명했다. 펠리페 2세는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톨릭 주교의 수를 늘리고 성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가톨릭을 강요했으며 신교를 탄압하였다. 또한 스페인 파견 총독들의 실정과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스페인 군대의 약탈과 성행하던 상업을 제한하였다. 이에 현지인들은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원성과 반발이 거세지면서 빌럼 판 오라네(빌럼 1세)와 귀족들은 세금 감면과 처우 개선, 자치권 회복 등을 요구했으나 펠리페 2세로부터 거부당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결국 1566년 폭동을 일으켜 홀란트, 제일란트, 위트레흐트 등 북부 지역의 성당과 성상 등을 파괴하였고 스페인은 반역으로 간주하여 대군을 파견해 무자비한 진압을 했다.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유명 귀족들까지 체포되어 사형당하자 빌럼 판 오라네(Willem I)는 작센으로 도피하였다가, 1568년 돌아와 반란을 일으켜 스페인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홀란트와 제일란트 일대는 스페인의 지배가 무력화되었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16세기 종교개혁을 맞아 네덜란드의 동북쪽은 독일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와 성례전 등 부패를 공박한 95개 조항으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촉진 시켰다. 루터의 종교개혁운동은 개신교를 낳았으며, 그의 사상은 사회,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후 남부에서는 프랑스의 잔 칼뱅(Jean Calvin)의 기독교사상 중 하나인 칼뱅주의(개혁주의)를 개창함으로써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절대 주권을 강조하였다. 브뤼겔의 사상은 칼뱅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네덜란드는 엄격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기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모진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에서 속을 터놓고 얘기하거나 세태를 비방할 수 없었다. 피터브뤼겔은 당시 부패한 지도자를 풍자나 속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였고 풍속화를 통해 역사의 엄중한 교훈을 전하며 상처받은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2) 피터 브뤼겔의 작품 특성

인물의 초상화나 신화의 내용과 종교화 등을 주로 그리던 시대에서 브뤼겔은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리므로 풍속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림 4〉의 〈아이들의 놀이〉는 명확한 대각선 구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산, 강, 들판, 나무, 건물 등의 마을 풍경에 익숙스럽고 해학적인 표정의 순박한 인간을 대각선 구도의 원근법으로 표현하여 비례와 균형감각의 평범한 질서로 개성 있는 화풍을 만들었다. 특히 하나의 소실점(消失點)을 향해 원근법을 사용하



〈그림 4〉 Children's Games  
(1559-1960)

(출처: <https://ko.wikipedia.org>)



〈그림 5〉 The Tower of  
Babel(1563)

(출처: <https://ko.wikipedia.org>)



〈그림 6〉 Netherlandish Proverbs  
(1559)

(출처: <https://ko.wikipedia.org>)



〈그림 7〉 The Blind Leading the Blind(1568)

(출처: <https://ko.wikipedia.org>)



〈그림 8〉 Peasant Wedding (1568)

(출처: <https://ko.wikipedia.org>)

여 선으로 인물들을 배치하였다. 〈그림 5〉의 〈바벨탑〉은 삼각형의 대담한 구도로 〈바벨탑〉의 시선 역시 위에서 아래를 보는 원근법 구도를 택하였다. 피터 브뤼겔 풍속화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징성으로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미와 추 등 이상과 현실 세계의 대비로 이중적 의미를 공존시키고, 주제에 담긴 상징으로는 교훈적인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림 6〉의 〈네덜란드의 속담(Netherlandish Proverbs)〉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선도하려는 구체적인 교훈과 생활의 지혜를 악마와 예수, 성자, 신앙인 그리고 죽음의 세계와 민중적 현실 세계의 대비되는 주제의 각각 독립된 형상으로 시각화했다. 〈그림 7〉의 〈맹인을 이끈 맹인(The Blind Leading the Blind)〉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누가복음 6장 39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은 많은 혼돈으로 맹인을 의지하여 길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들의 상황에서 실명이라는 외적 상황보다 더 깊고 힘든 진리로 향하는 길을 잃은 인간의 무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가진다.

둘째, 해학성으로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우화

나 속담의 내용을 통해 해학적이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 〈아이들의 놀이〉 그림 속의 아이들은 해학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당시 유행하던 등 뛰어넘기, 굴렁쇠 돌리기 놀이, 팽이치기 등 80여 가지의 갖가지 놀이를 재연하였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얼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도록 표현되어 〈아이들의 놀이〉는 풍자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브뤼겔은 익살스러운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학적으로 완성하였다.

셋째, 브뤼겔 작품의 미적 특성으로 현실성(現實性)을 들 수 있다. 엄격한 비례와 균형감각에 맞춘 화면 구성과 사물들의 묘사는 자연스럽게 현실을 강조하고자 변형된 개성적 표현으로 소박한 형태를 만들어간다. 즉 르네상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이상적 개념을 추구하기보다 자연과 현실적인 인간의 삶에서 나온 독자적인 묘사력을 만들어간다(유재길, 1992). 〈그림 8〉의 〈농가의 결혼(Peasant Wedding)〉은 미켈란젤로(Michelangelo)나 라파엘로(Raffaello) 등이 추구한 이상적인 미의 추구나 인체의 완벽한 비례는 무관심하다. 실제 농민들의 현실적인 결혼 모습을 사실적인 자연풍경이나 배경과 함께 조화롭게 표현하였다.

〈표 1〉 조선시대 민화와 브뤼겔 풍속화의 비교 분석

		유사한 점		상이한 점	
		조선시대의 민화와 브뤼겔의 풍속화	조선시대의 민화	브뤼겔의 풍속화	
배경	시대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저항	해상무역으로 중인들이 부를 축적하므로 안정된 삶에서 활성화	탄압의 배경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 내야하는 의미로 탄생	
	사상	-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불교, 도교 실학사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	
특성	미적 특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 관념성	현실성	
	구도	-	대칭형구도 나열형구도 원근법을 무시한 다시점 구성	대각선구도 원근법을 사용한 조감도 구성 단일 시점	
	내용	신화 민담 힘든 현실을 사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설	우화 속담 성경	

### 3. 민화와 풍속화의 비교 및 패션에 적용된 사례 분석

#### 1) 민화와 브뤼겔 풍속화의 비교 분석

민화의 내용은 신화나 민담, 전설을, 브뤼겔의 풍속화는 우화, 속담, 민담을 줄거리로 유사한 내용들을 그렸다. 민화의 시대적 배경은 17세기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 그리고 브뤼겔 풍속화의 시대적 배경은 스페인의 통치하에서 종교탄압과 약탈, 과도한 세금 징수 등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둘 모두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이 유사한 점이다. 또한 민화는 전반적인 사회적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부의 상징과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고 활성화되었다. 반면 브뤼겔의 풍속화는 장식이나 부의 상징보다는 폭동과 탄압의 배경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 내야 하는 의미로 탄생되었고 농민들의 진솔한 모습을 풍속화를 통해 풀어낸 것은 상이한 점이었다.

사상적 배경으로 민화는 무속신앙의 바탕으로 유교, 불교, 도교와 실학사상을, 브뤼겔의 풍속화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민화와 브뤼겔의 풍속화의 미적 특성 중 유사

한 점은 상징성과 해학성이며 상이한 점은 민화는 실용성과 관념성, 풍속화는 현실성으로 나타났다.

민화의 구도는 대칭형 구도와 나열형 구도로 원근법을 무시한 다 시점 구성을 채택하였고 풍속화는 대각선 구도로 원근법을 사용한 조감도 구성으로 차이점이 나타났다.

민화의 특성 중 미적 특성인 상징성과 해학성 그리고 주제의 내용에서는 신화나 민담의 이야기를 사용하거나 자연을 배경으로 풍자를 담는 등 브뤼겔의 풍속화는 민화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시대의 민화와 브뤼겔 풍속화의 비교 분석은 〈표 1〉과 같다.

#### 2) 민화와 풍속화의 패션에 적용된 사례 분석

최근 동양과 서양, 남성과 여성, 빈과 부의 결합 등의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을 섞어 만든 하이브리드 패션(hybrid fashion)이 각광 받고 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현상은 패션에 회화, 조각,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공연, 스포츠 등의 융합으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그 예로 〈그림 9〉와 〈그림 10〉은 2013년 F/W 시즌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가 시칠리



〈그림 9〉 2013 F/W Ready To Wear,  
Dolce & Gabbana  
(출처 : <http://runway.vogue.co.kr>)



〈그림 10〉 2013 F/W Ready To Wear,  
Dolce & Gabbana  
(출처: <http://runway.vogue.co.kr>)



〈그림 11〉 Resort Collection  
2018, Prada

(출처 : <https://blog.naver.com/gonny3021/221001703327>)



〈그림 12〉 Resort Collection  
2018, Prada

(출처 : <https://blog.naver.com/gonny3021/221001703327>)



〈그림 13〉 Resort Collection  
2018, Prada

(출처 : <https://blog.naver.com/songsh0611/221926617067>)

아(Sicilia)섬 몬레알레(Monreale) 대성당의 모자이크를 의상에 비즈로 수놓아 성스러운 벽화를 의상에 재현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은 프라다(PRADA)의 2018 리조트 컬렉션(resort collection)에서 제임스 진(James Jean, 1979년~)의 일러스트 작품을 패션에 옮겨 발표한 것이다.

패션에서 이러한 탈 장르화는 인간을 존중하고자 하는 바탕에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 Ⅲ. 가방디자인 개발

#### 1. 민화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 작품의 융합

민화 캐릭터 개발은 민화의 특성 중 내적 특성이 상징성과 해학성 그리고 주제의 내용에서는 신화나 민담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민화의 캐릭터를 디자인하였다.

민화와 풍속화의 융합하는 과정에서는 민화와 피터 브뤼겔의 조형적 특성과 내적 특성을 활용하였다. 내적인 특성 중 상반되는 민화의 관념성과 풍속화의 현실성을 활용하여 풍속화의 잔잔한 풍경 속 관념에 의해 그려진 민화 캐릭터를 배치하여 새로운 조형성의 확장과 함께 새로운 의미의 상징을 담아 융합하였다. 조형적 특성으로 호

랑이 민화 캐릭터와 <아이들의 놀이> 융합에서는 풍속화의 원근법에 맞춰 민화 캐릭터를 재배치하였고 풍속화의 대각선 구도 등을 활용하였다. 사슴 민화 캐릭터와 <바벨탑> 융합에서도 사슴 캐릭터를 배치할 때 풍속화의 원근법을 활용하여 배치하였다.

1)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융합

<그림 14>의 까치 호랑이에서 호랑이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고 우리나라 민담인 “맑은 날 비 오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이 민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마을에 효심이 깊은 가난한 한 처녀가 아버지를 위해 재물로 팔려 가게 되었고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가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재물로 바쳐진 처녀를 호랑이가 둔갑한 것으로 오해해 죽였고 호랑이는 화가 나 처녀의 아버지지만 살려 두고 모두 죽였는데 아버지도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된다. 그 죽은 처녀는 구름이 되었고, 아버지는 해가 되었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은 처녀를 그리워하다

다른 짝을 찾게 되었다. 호랑이의 결혼식 날 구름이 된 처녀는 호랑이를 보러 비가 되어 내리게 되었고, 해가 된 아버지는 그런 딸을 지키기 위해 비가 내리는 중에도 곳곳이 떠 있었다고 한다. 그 뒤로 해가 떠 있는 날, 비가 오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다른 내용은 여우를 사랑한 구름이 여우가 호랑이에게 시집가자 이를 슬퍼하여 우는 비를 여우비라고 하였다. 여우비는 대기 높은 곳에서 돌풍이 몰아칠 때 강한 비바람으로 구름이 끼지 않는 맑은 곳까지 빗방울이 오게 되는 현상으로 맑은 날에 잠깐 내리는 비를 얘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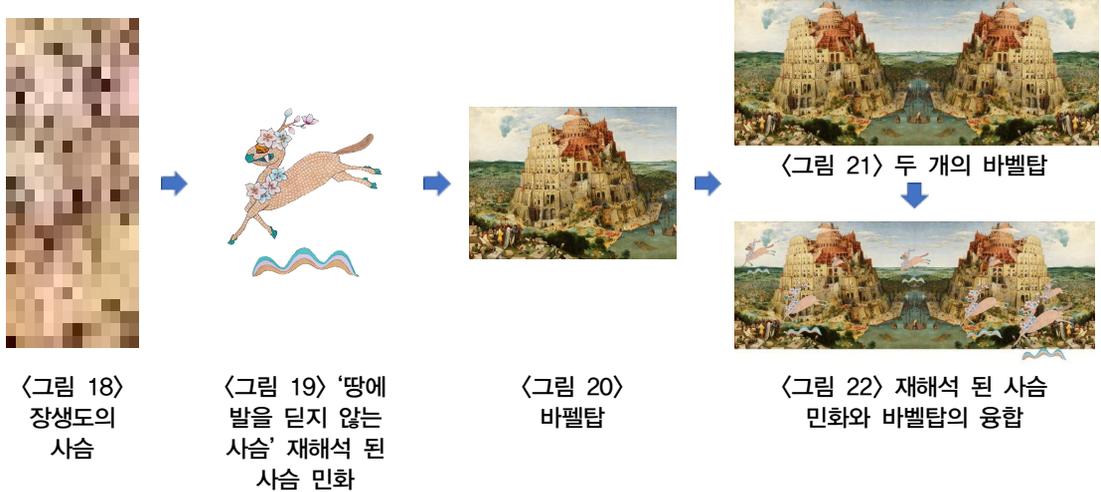
실제 제작과정은 우리나라 전통 민화 까치 호랑이에서 호랑이 그림을 그대로 차용하여 민담의 이야기 내용을 호랑이 신랑에게는 나비넥타이와 우산으로 신부에게는 좌우 방향을 바꿔 신랑과 마주 보게 재배치하였다. 신부의 상징인 화관의 면사포와 부케로 결혼식의 이미지를 장지에 अच्छ게 표현하여 <그림 15>의 ‘어! 해가 났는데 비가...’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브뤼겔의 아이들의 놀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위치에 ‘어! 해가 났는데 비가’ 캐릭터를 <그림 17>에서 보듯이 앞부분은 크게 멀어질수록 작게 배치하고 재구성하여 레더에 프린트하여 융합하였다.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의 융합과정은

<표 2>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융합과정



〈표 3〉 사슴 민화와 〈바벨탑〉의 융합과정



〈표 2〉와 같다.

2) 사슴 민화와 〈바벨탑〉의 융합과정

〈그림 19〉의 장생도의 사슴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여 성경에 등장하는 사슴을 주제로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아가서에는 총 7번 사슴이 등장하는데 “네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아가 4:5) 여기서는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축복의 개념으로 자비와 양육, 신뢰, 부드럽고 따뜻한 안전의 개념, 즉 생명과 생명 갱신의 완전 참여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새끼 사슴의 “기민한 민첩성”을 가장 중요한 함축으로 보는데 쌍둥이 어린 사슴에 젓가슴을 비교한 것은 “젓가슴은 생명과 소생”으로 연관되고 있다. 염소나 사슴 같은 동물들은 거친 언덕이나 광야에 사는데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사슴은 창조 전의 혼돈과 죽음의 세계로 간주되는 곳에 사는 동물이다. 결국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환경에서 생존할 뿐 아니라 놀라운 활기를 보여주는 사슴은 죽음 자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신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 이사야(Isaiah) 35:6 “저는 자는 사슴같이 떨 것이며”, 하박국(Habakkuk) 3:19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에 등장하는 사슴은 힘이 없고 무능

한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력과 활기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슴으로 비유된 아가서의 여인은 역동성과 생명력을 느끼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에 속하게 된 이후 인간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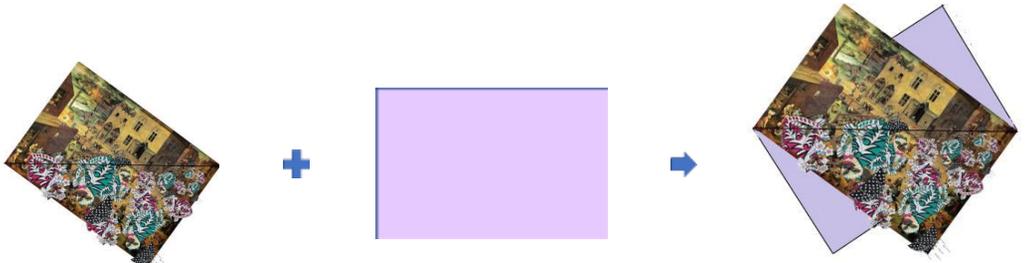
실제 제작과정은 우리나라 전통 민화 십장생도에 등장하는 사슴 그림을 그대로 차용하여 아가서에 표현된 사슴의 상징인 “생명과 소생”을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신부의 이미지에 접목시켜 화관을 씌워 전통적인 우리나라 민화 형태와 기독교의 사상이 공존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발을 땅에 딛지 않고 뛰어다니는 사슴의 기민한 민첩성을 산 위를 날아다니는 형태로 사슴 그림의 배경을 해체하고 산을 단순화시켜 한 디자인 안에 다시 배치하고 재구성하여 〈그림 22〉의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사슴’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민화기법으로 장지에 안채를 사용하여 그려서 실제 민화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으며, 〈그림 20〉의 〈바벨탑〉을 나란히 두 개 붙이고 〈그림 21〉, 〈그림 22〉의 ‘땅에 발을 딛지 않는 사슴’ 캐릭터를 재구성하여 브뤼겔의 〈바벨탑〉을 레더에 프린트하여 융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사슴 민화와 바벨탑의 융합과정은 〈표 3〉과 같다.

2. 피터 브뤼겔(Pieter Brueghel) 작품의 구도를 활용한 가방의 형태

〈표 4〉 작품 디자인 설명

작품	가방디자인에 활용한 구도	인쇄	원단 컬러	소재	부자재	사이즈 (cm)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대각선구도, 소실점을 향한 사선구도	UV 프린터	glossy ivory, purple, yellowish green	leather cloth, canvas cotton 100%	양면 지퍼	가로45x세로22x폭5 (핸들25)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삼각형구도	UV 프린터	glossy ivory, yellow, gray	leather cloth, cowhide	D ring, O ring, 양면 지퍼	가로40x세로35x (핸들25)

〈표 5〉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과정



〈그림 23〉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전개도

〈그림 24〉 〈아이들의 놀이〉와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그림 25〉 비스듬히 겹쳐진 〈아이들의 놀이〉와 직사각형



〈그림 26〉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전면



〈그림 27〉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후면

가방의 전체적인 형태로는 브뤼겔의 풍속화의 조형적 특성 중 삼각형 구도, 대각선 구도, 소실점을 향한 사선 구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디자인 설명은 〈표 4〉와 같다.

- 1)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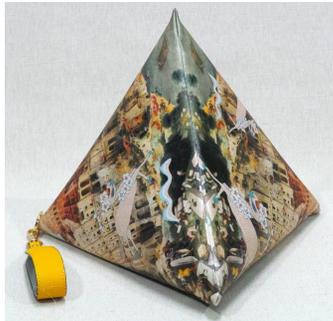
가방의 형태는 브뤼겔 작품 〈아이들의 놀이〉에서 하나의 소실점을 향하는 대각선 구도와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아이들의 놀이〉 작품과 직사각형 모양 두 개 〈그림 23〉, 〈그림 24〉을 〈그림 25〉처럼 비스듬하게 겹쳐 붙이고 반을 접어, 전면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위에 ‘어! 해가 떴는데 비가...’의 재해석된 민화가 주로 나타나게 〈그림 26〉과 같이 제작하였다. 〈그림 28〉의 후면은

〈표 6〉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과정



〈그림 28〉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디자인 전개도



〈그림 29〉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밑면



〈그림 30〉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전면

〈아이들의 놀이〉의 배경인 마을 풍경이 주로 나타나 브뤼겔의 명화를 그대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디자인하였다.

우리의 일상에서 해가 떴는데 비가 오면 “호랑이 장가 가나보다.”라는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민담의 이야기를 호랑이 민화에 재구성하여 한국적인 이미지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하이터치(high-touch) 감성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전면과 후면 모두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도록 디자인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글로시 이이보리 레더 클로스(leather cloth)에 UV프린터로 인쇄하고 캔버스 원단으로 배색하였다. 호랑이 민화와 〈아이들의 놀이〉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과정은 〈표 5〉와 같다.

2)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의 형태는 〈바벨탑〉의 삼각형 구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림 28〉에서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전개도의 옆을 원통형으로 연결하고 바벨탑의 밑면끼리 연결하였다. 〈그림 29〉의 밑면에는 바벨탑과 재구성한 사슴 민화의 크기를 달리하여 배치하였다. 〈그림 30〉의 전면에는 하늘과 배경 부분에 재구성한 사슴 민화를 전면과 밑면이 모두 다르게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스트랩은 전체적인 다양한 컬러를 정리하기 위해 앞부분은 비비드(vivid)한 옐로우와 뒷면에는 그레이의 컬러치용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였고 〈표 4〉에서 보듯이 글로시 이이보리 컬러의 레더 클로스(leather cloth)에 UV프린터로 인쇄하였다. 바벨탑은 구약성경 중 창세기 11장 1-9절의 이야기로 인간들의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꿈꾸며 탑을 쌓게 된다. 결국, 신은 인간들이 소통할 수 없

도록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흠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아가서에 등장하는 생명의 상징인 사슴으로 재구성하여 교만과 죄의 상징인 바벨탑에 생명이 숨 쉬길 바라며 디자인하였다. 사슴 민화와 〈바벨탑〉 구도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 과정은 〈표 6〉과 같다.

#### IV. 결론

인간 존중의 분위기가 팽배할수록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되며 그것의 가격이 어떠한지의 문제인 가성비(價性比)보다 희소성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심비(價心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소비와 소장의 가치를 두게 되며 실제 경제의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며 소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풍속 회화와 우리나라의 민화를 융합하고 내용에 상징하는 바가 있어 소비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가방을 디자인하였다.

민화와 브뤼겔의 풍속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해상무역으로 중인들이 부를 축적하고 안정된 삶에서 민화가 활성화되었고 사상적 배경으로는 무속신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불교, 도교와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브뤼겔의 풍속화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식민지 탄압의 배경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 내야 하는 의미로 탄생되었고 사상적 배경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 영향을 받았다. 민화와 브뤼겔 풍속화의 공통된 점은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배경에서 풍자를 통한 저항을 표현한 것이다. 담겨있는 주제의 내용으로는 민화는 신화, 민담, 전설을, 풍속화는 신화, 민담, 우화, 속담,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사한 점으로 신화, 민담의 내용으로 힘든 현실을 사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민화의 구도로는 대칭형 구도와 나열형 구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원근법을 무시한 다시점 구성을 하고 있었다. 풍속화의 구도로는 대각선 구도

로 원근법을 사용한 단일 시점의 조감도 구성을 하고 있다. 미적 특성으로 민화는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 관념성이 나타났고 풍속화는 상징성, 해학성, 현실성으로 상징성과 해학성은 민화와 풍속화에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었다. 민화의 관념성과 풍속화의 현실성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디자인 전개 과정으로는 첫 번째 단계는 민화까지호랑이의 호랑이와 십장생도의 사슴에, 우리나라 민담 이야기와 성경 아가서에 표현된 사슴의 의미를 내용으로 민화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제작된 민화 캐릭터에 피터 브뤼겔의 풍속화를 융합하여 재구성하였고 세 번째 단계는 재구성된 작품을 가방 디자인에 적용하여 디자인을 제작하는 세 가지의 단계로 전개하였다.

전개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서 민화를 장식적인 면과 함께 조화롭게 재구성한 캐릭터는 전통 민화에 재미를 더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치하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 새로운 조형적인 확장성이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방을 보는 방향에 따라 하나의 가방으로 여러 가지 이미지와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론적 배경에서 브뤼겔의 풍속화와 민화의 유사한 점과 상이한 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중 미적 특성의 유사한 점으로 나타난 상징성과 해학성을 디자인 개발의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내용적인 측면으로 호랑이 민화 캐릭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민담의 이야기를 호랑이 민화에 재구성하므로 해학적인 형태의 이미지와 함께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며 생활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고감도(高感度)의 자극을 줄 수 있다. 바벨탑은 구약성경 중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인간들의 교만으로 인해 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고자 하는 헛된 욕망을 본 신은 언어를 다르게 하여 인간들이 소통할 수 없도록 만들어 흠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아가서에 등장하는 생명과 소생의 상징인 사슴으로 재구성하여 교만과 죄의 상징인 바벨탑에 생명이 숨쉬기를 바라는 상징성을 담은 디자인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해학성과 상징성을 사용하여 제작된 가방 디자인은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자신만의 의미가 되는 것을 구매하고 소장하고 싶어 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귀여움과 동시에 사랑스러운 형태로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상이 반영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현재의 시대상이 반영된 우리나라 민화를 개발하고 계승하는 연구 모색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생도 연구. *미용예술경영연구*, 11(4), 53-69.  
 정병모 (2011). *민화(무명화가들의 반란, 정병모 교수의 민화읽기 1)*. 서울:다할미디어.  
 정병모. (2017). *민화는 민화다 이야기로 보는 우리 민화세계*. 서울: 다할미디어.  
 하수경. (2004). 한국 호랑이 그림에 대한 一考察. *비교민속학*, 26, 611-643.

## 참고문헌

- 곽은주. (2011). *미술치료의 입장에서 본 십장생의 상징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찬. (2007). 아가서의 문예적 독특성과 신학적 메시지. *신학지남*, 74(3), 121-162.
- 김월계. (2010). 민화 호랑이를 응용한 스포츠웨어 디자인 연구. *복식학회*, 60(5), 128-138.
- 박명숙 (2007). 박명숙의 명화읽기 농민의 생활에 매료되었던 화가-비터 브뤼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56, 143-148.
- 박정민 (2013). *십장생도(十長生圖)를 활용한 패션 소품디자인*.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혜련, 김혜경. (2011) 민화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1), 103-12.
- 안소영. (2016). 피터 브뤼헬의 <농부들의 결혼 연회>에 나타난 이상적인 결혼. *미술사학*, 32, 237-262.
- 염미선. (2016). 민화의 화조화에 나타난 모티브와 색채를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8(2), 115-125.
- 유재길 (1992). 피터 브뤼헬의 화면구성 특징과 상징성 연구. *서양미술사학회*, 4, 59-91.
- 이은애. (2011).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가서에 나타난 인간론. *기독교사상*, 42-49.
- 이인영 (2017) 민화의 해학적 표현 특성을 활용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개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7(2), 169-182.
- 정명호, 김신아, 권기형. (2017). 병풍 속 민화 십